

동 자료는 2010년 10월 6일 1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 ·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

2010. 10. 6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한국노동연구원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정보통신정책연구원

한국문화관광연구원

한국개발연구원

산업연구원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
한국보건산업진흥원
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

< 목 차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한·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| 1 |
| II. 추진 경과 | 2 |
| III. 분석 방법 | 3 |
| IV. 거시경제효과 | 5 |
| 1. 성장 및 후생 수준 | 5 |
| 2. 고용 | 6 |
| 3. 수출입 및 무역수지 | 7 |
| V. 산업별 효과 | 8 |
| 1. 제조업 | 8 |
| 2. 농업 | 10 |
| 3. 수산업 | 12 |
| 4. 서비스업 | 14 |
| 5. 보건산업 | 17 |

I. 한·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

1. 한·EU FTA 의의

- 한·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,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

* EU의 GDP는 18.3조불로, 세계 전체 GDP의 약 30%(1위)를 차지

-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

2. 한·EU FTA 주요내용

- 상품분야(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)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.6%,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% 양허한 높은 수준

한·EU FTA의 상품 양허내용

| | 한국 | | | | EU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품목수(개) | (%) | 수입액(억 \$) | (%) | 품목수(개) | (%) | 수입액(억 \$) | (%) |
| 즉시 철폐 | 9,195 | 81.7 | 182.7 | 66.7 | 9,252 | 94.0 | 318.7 | 76.6 |
| 3년 철폐 | 625 | 5.5 | 60.6 | 22.2 | 282 | 2.9 | 68.6 | 16.7 |
| 5년 철폐 | 718 | 6.4 | 22.2 | 8.1 | 269 | 2.7 | 28.1 | 6.8 |
| (5년이내 총계) | 10,538 | 93.6 | 265.5 | 97.0 | 9,803 | 99.6 | 415.4 | 100.0 |
| 7년 철폐 | 111 | 1.0 | 3.6 | 1.4 | - | - | - | - |
| 10년 철폐 | 399 | 3.5 | 3.0 | 1.1 | - | - | - | - |
| 10년 초과 | 169 | 1.5 | 1.3 | 0.5 | - | - | - | - |
| 양허 계 | 11,247 | 99.6 | 273.4 | 100.0 | 9,803 | 99.6 | 415.4 | 100.0 |
| 양허제외 | 44 | 0.4 | 0.0 | 0.0 | 39 | 0.4 | 0.0 | 0.0 |
| 전 체 | 11,261 | 100.0 | 273.5 | 100.0 | 9,842 | 100.0 | 415.4 | 100.0 |

주 1) 품목수는 HS 2006, 수입액은 2004~06년 평균 기준

2) 농업세이프가드, 수입쿼타,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

-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**Positive** 방식에 의해서 양허(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)

-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, EU는 139개 분야 개방

II. 추진 경과

① 한·EU FTA가 체결됨에 따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 작업을 실시

○ 협상내용에 기초하여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

* '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 주관으로 「한·EU FTA 영향분석」을 한 바 있으나, 확정된 협상내용과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재분석 추진

② 총 10개 국책연구기관(총괄 KIEP)이 참여하여 한·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

*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노동연구원, 산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, 해양수산개발원, 보건산업진흥원, 문화관광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원

○ 각 연구기관들이 해당분야의 경제효과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,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기관간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석방법, 분석범위 등 분석 틀을 조정

○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틀·방법론·결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·자문*을 구한 후 최종결과 확정

* KIEP주관 민간전문가 검토 자문회의 개최('10.9.7)

Ⅲ. 분석 방법

- ① 한·EU FTA 이행이 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(CGЕ 모형 :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)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(대외研)

* CGE 모형 : 생산, 소비,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형

- 단기 효과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
 - *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5년 이하 품목은 완전 철폐, 6년 이상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 인하 폭을 모형에 대입
 - 중장기 효과는 쌀 등 개방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, FTA 이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도 고려
 - 생산성 향상효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을 모형에 대입
 - ▶ 한·미 FTA와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경제권과의 FTA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모형에 대입함.
 - ▶ (제조업) 시장개방, 외국인 투자유치, 기술이전 등이 생산성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이용, 1.2% 증가를 가정
 - ▶ (서비스업)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비공공서비스 부문에만 1%의 생산성 증대를 가정
 - ① 수입관세율 1%p하락에 따라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이 1.2~1.6% 증가한다는 실증 분석
 - ② 1991~2001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.15%로 계측됨
- ②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단기과 장기의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불변가격을 적용하고 그 실질 변동금액에 고용계수를 적용하여 분석(노동研)

- ③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분석결과로 도출된 제조업과 농업·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
- ④ 한·EU FTA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
 - 제조업·농업·수산업·보건산업 등은 대체로 업종별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·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수출입·생산 등의 변화를 분석
 -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생산 및 소득변화,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
- ⑤ 각 연구원 판단하에 이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, 분석 결과간 정합성을 점검하였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
 - 거시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와 산업별 분석 결과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측면
 - 특히, 거시분석에서는 FTA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기간을 10년으로 상정한 반면, 산업별 분석에서는 15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큰 요인
 - * 향후 산업별·품목별 구조조정 기간까지의 영향만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아직 보완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
 - 산업별 분석의 경우 가용 자료 제약 등으로 일정 부분(예 : 통신 시장규모 예측 등) 불가피하게 가정을 전제하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

향후 산업별·품목별 보완대책이 마련·집행됨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

IV. 거시경제효과

1. 성장 및 후생 수준

① (성장) 한·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.6%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

* 한·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.56% 증가

○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.1%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.6%까지 확대 예상

② (후생 수준)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·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.8%(320억\$) 수준

한·EU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

(단위 : %)

| |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(단기) | 자본 축적(장기)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생산성 증대 미고려 | 생산성 증대 고려 |
| 실질 GDP | 0.10 | 0.64 | 5.62 |
| 후생 수준 | 0.18 | 0.47 | 3.84 |

주) 후생수준은 2009년 GDP 대비임

2. 고용

- ① 한·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
-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0천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
 -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3천명으로 확대
- ② 한·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, 제조업 33천명, 서비스업 219천명 증가 예상
- 다만,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천명의 취업자수 감소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천명, 42천명 증가

한·EU FTA의 고용효과(누적)

(단위 : 천명)

| | 단기 정태모형 | 자본축적모형(장기)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|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|
| 농수산업 | △1.7 | △3.1 | 0.9 |
| 제조업 | 4.0 | 9.4 | 33.2 |
| 서비스업 | 27.6 | 41.5 | 219.0 |
| 전산업 | 29.9 | 47.8 | 253.1 |

3. 수출입 및 무역수지

① 한·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.61억\$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¹⁾

○ 對EU 수출은 25.3억\$ 확대되는 데 비해, 對EU 수입은 21.7억\$ 확대

② 산업별로 보면

○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,100만\$ 적자 예상

○ 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\$ 확대 예상

○ 반면,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.95억\$ 확대 예상

한·EU FTA의 무역수지 효과

(연평균, 단위 : 백만\$)

| | 수출 증가 | 수입 증가 | 무역수지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농업 | 7 | 38 | △31 |
| 수산업 | 10.3 | 12.7 | △2.4 |
| 제조업 | 2,520 | 2,125 | 395 |
| 계 | 2,537 | 2,175 | 361 |

1) 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, 농업,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함.

V. 산업별 효과

1. 제조업

- ▶ (협상 결과) ① 협상대상 품목 수 한국 (HS 10단위 기준) 9,404개 EU (CN 8단위 기준) 7,398개, ② 품목수 기준 3년내 관세 EU 99.4%, 한국 95.8% 철폐
- ▶ (분석 방법)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,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

① (수출입)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.2억\$, 수입은 21.3억\$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(수출) 자동차(14.1억\$), 전기전자(3.9억\$), 섬유(2.2억\$) 순으로 증가
한·EU FTA 체결에 따른 對EU 수출 증가액

(단위 : 백만\$)

| | 연평균 | 연도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자동차 | 1,407 | 1,072 | 1,574 | 1,574 |
| 전기전자 | 394 | 345 | 418 | 418 |
| 섬유 | 216 | 216 | 216 | 216 |
| 기계 | 116 | 107 | 120 | 120 |
| 석유화학 | 108 | 104 | 110 | 110 |
| 생활용품 | 77 | 66 | 82 | 82 |
| 정밀화학 | 53 | 52 | 53 | 53 |
| 비철금속 | 10 | 9 | 10 | 10 |
| 철강 | 7 | 7 | 7 | 7 |
| 선박 | 4 | 4 | 4 | 4 |
| 제조업 전체 | 2,520 | 2,110 | 2,725 | 2,725 |

- (수입) 전기전자(4.3억\$), 기계(3.8억\$), 정밀화학(2.9억\$)순으로 증가

한·EU FTA 체결에 따른 對EU 수입 증가액

(단위 : 백만\$)

| | 연평균 | 연도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전기전자 | 430 | 391 | 449 | 450 |
| 기계 | 383 | 334 | 407 | 408 |
| 정밀화학 | 290 | 249 | 311 | 311 |
| 자동차 | 217 | 193 | 230 | 230 |
| 섬유 | 141 | 137 | 142 | 143 |
| 생활용품 | 93 | 83 | 98 | 98 |
| 석유화학 | 76 | 68 | 80 | 80 |
| 비철금속 | 47 | 41 | 49 | 49 |
| 철강 | 43 | 43 | 44 | 44 |
| 선박 | 19 | 16 | 21 | 21 |
| 제조업 전체 | 2,125 | 1,900 | 2,235 | 2,239 |

② (생산)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.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

-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(1.9조원)가 가장 크고, 다음으로 섬유(0.1조원), 철강(0.08조원) 순으로 예상

한·EU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 생산 증가액

(단위 : 억원)

| | 연평균 | 연도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자동차 | 19,432 | 14,345 | 21,951 | 21,951 |
| 섬유 | 1,124 | 1,152 | 1,124 | 1,110 |
| 철강 | 842 | 303 | 1,087 | 1,083 |
| 생활용품 | 453 | 276 | 535 | 535 |
| 전기전자 | 273 | △73 | 444 | 430 |
| 석유화학 | 140 | 240 | 88 | 86 |
| 선박 | △164 | △131 | △186 | △186 |
| 비철금속 | △395 | △383 | △395 | △396 |
| 정밀화학 | △2,483 | △2,087 | △2,693 | △2,693 |
| 기계 | △2,456 | △2,245 | △2,564 | △2,578 |
| 제조업 전체 | 15,156 | 9,791 | 17,772 | 17,718 |

2. 농업

- ▶ (협상 결과) ① 한국은 1,466개, EU는 2,064개 품목 대상, ②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(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42개 세번), ③ EU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최대 5년
- ▶ (분석 방법) ① 탄성치 이용 방식과 농업부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
 ② 기준값과 한EU FTA 이행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평가
 ③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, EU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효과 감안

① (수출입)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\$ 증가하고 수입은 약 3,750만\$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(수출)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, 배, 기타조제채소, 비알콜음료, 커피추출물, 간장, 곡물조제식료품, 조제식료품 기타, 마카로니, 담배(비조제품), 권련, 조주정, 면웨이스트, 페이스트리,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

한-EU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출 증가액

(연평균, 단위 : 천\$)

| 품목 | 수출증가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사과, 배 등 15개 품목 합계 | 7,330 |

- (수입) 품목별로는 돼지고기,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한-EU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

(단위 : 천만\$)

| | 연평균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수입 증가액 | 3.8 | 1.4 |

③ (생산)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,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,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.0%를 차지함.
-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

품목별 생산 감소액

(단위 : 억원)

| | 연평균 | 연도별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감자 전분 | 10 | 0 | 8 | 23 |
| 돼지고기 | 828 | 328 | 943 | 1,214 |
| 닭고기 | 218 | 105 | 231 | 319 |
| 낙농 | 323 | 40 | 277 | 651 |
| 포도(가공주스) | 32 | 32 | 32 | 32 |
| 키위 | 42 | 18 | 43 | 63 |
| 토마토(가공) | 43 | 23 | 52 | 54 |
| 쇠고기 | 280 | 58 | 279 | 501 |
| 합 계 | 1,776 | 604 | 1,865 | 2,857 |

- 주 1) 15년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는 품목은 이행 완료 시점의 피해액을 15년차의 합계를 위해 15년까지 연장
- 2) 감자전분, 포도, 토마토의 생산액 감소는 2005-07 평균 기준이며, 키위는 2007년 기준임.
- 3) 축산 부문 생산액 감소는 KASMO²⁾ 모형의 결과임. 기타 품목은 정성적 분석 및 탄성치를 이용한 분석결과임.

2)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모형으로 재배업 40개, 축산업 5개 등 총 45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.

3. 수산업

- ▶ (협상 결과) ① 한국은 408개, EU는 380개 품목 대상, ②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2년(양허제외 품목 3개), EU의 경우 최대 5년
- ▶ (분석 방법) ① 對EU 수산물의 수출입 가격 탄력성을 기초로 수출입 증대효과 분석, ② 생산감소 계측은 수입 증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감소효과와 EU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 감소로 나누어 분석

① (수출입)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,036만\$ 증가하고 수입은 1,273만\$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(수출) 품목별로 황다랑어(냉동), 생선묵(게맛), 기타어류(냉동), 기타피레트(냉동) 등의 품목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

품목별 수출 증가액

(단위 : 천\$)

| | 연평균 | 기간 | |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황다랑어(냉동) | 1,489 | 1,072 | 1,697 | 1,697 |
| 생선묵(게맛) | 1,454 | 1,033 | 1,664 | 1,664 |
| 기타어류(냉동) | 1,050 | 1,050 | 1,050 | 1,050 |
| 기타피레트(냉동) | 990 | 705 | 1,133 | 1,133 |
| 바지락(밀폐) | 896 | 779 | 955 | 955 |
| 기 타 | 4,480 | 3,967 | 4,736 | 4,736 |
| 합 계 | 10,359 | 8,607 | 11,235 | 11,235 |

- (수입) 품목별로는 골뱅이(기타조제), 기타넙치(냉동), 참다랑어 피레트(냉동), 참다랑어(냉동) 등 품목이 크게 증가

품목별 수입 증가액

(단위 : 천\$)

| | 연평균 | 기간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
| 골뱅이(기타조제) | 4,166 | 2,991 | 4,754 | 4,754 |
| 기타넙치(냉동) | 2,624 | 1,778 | 2,613 | 3,481 |
| 참다랑어피레트(냉동) | 2,511 | 2,167 | 2,683 | 2,683 |
| 참다랑어(냉동) | 1,125 | 1,125 | 1,125 | 1,125 |
| 기타연체동물(밀폐제외) | 619 | 444 | 706 | 706 |
| 기 타 | 1,681 | 1,129 | 1,789 | 2,126 |
| 합 계 | 12,726 | 9,634 | 13,669 | 14,875 |

② (생산)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
-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해면어업으로 연평균 42억원, 다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이 커 연평균 27억원의 생산 감소 예상

어업별 생산 감소액

(단위 : 백만원)

| | 연평균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 |
| 일반해면 | 4,245 | 2,712 | 4,758 | 5,265 |
| 원 양 | 2,686 | 2,363 | 2,825 | 2,871 |
| 천해양식 | 2,152 | 1,548 | 2,259 | 2,649 |
| 내 수 면 | 335 | 240 | 382 | 382 |
| 합 계 | 9,418 | 6,863 | 10,224 | 11,166 |

-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넙치류, 참다랑어류, 골뱅이, 불락류의 순서이며 넙치류의 경우 연평균 26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

어종별 생산 감소액

(단위 : 백만원)

| | 연평균 |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1~5년 | 6~10년 | 11~15년 | |
| 넙치류 | 2,617 | 1,911 | 2,743 | 3,198 |
| 참다랑어류 | 1,891 | 1,761 | 1,957 | 1,957 |
| 골뱅이 | 1,018 | 739 | 1,157 | 1,157 |
| 불락류 | 993 | 612 | 1,120 | 1,248 |
| 기타연체동물 | 819 | 588 | 935 | 935 |
| 기 타 | 2,079 | 1,252 | 2,314 | 2,672 |
| 합 계 | 9,418 | 6,863 | 10,224 | 11,166 |

주) 기타연체동물에는 주로 기타패류가 해당됨

4. 서비스업

- ▶ (협상 결과) ① 협정문 :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② 양허안 :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,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
- ▶ (한·EU FTA에 의한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)
 - ① (문화/관광)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
 - ② (통신)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%까지 허용
 - ③ (금융·법률)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
 - ④ (환경)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

(1) 문화/관광

- ① (공동제작협정) 문화협력의정서에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
 -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,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,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

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(연평균, 억원, 명)

| | 연평균 | 1~5년 (2010-2014) | 6~10년 (2015-2019) | 11~15년 (2020-2024)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산유발효과 | 102.5 | 46.5 | 85.6 | 175.5 |
| 부가가치유발효과 | 45.8 | 20.8 | 38.3 | 78.5 |
| 고용유발효과 | 72.3 | 32.8 | 60.4 | 123.7 |

- ② (저작권 보호기간 연장) 출판·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
 -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

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 (연평균, 억원)

| | 연평균 | 1~5년 (2010-2014) | 6~10년 (2015-2019) | 11~15년 (2020-2024) | 16~20년 (2025-2029)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출판 | 21.3 | 7.3 | 28.9 | 29.3 | 25.8 |
| 음악 | 0.5 | 0.1 | 0.4 | 0.6 | 0.7 |
| 합계 | 21.8 | 7.4 | 29.3 | 29.9 | 26.5 |

[2] 통신

- ① (통신분야 시장 개방)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(KT, SKT 제외)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%까지 허용하였으나,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
-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, 외국인이 이미 49%까지 직접투자 가능
 - *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 -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,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
 - *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원, 소득은 255억원 증가 예상
 - 다만,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*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
 - * 국제 전화 및 국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

[3] 금융

- ① 한-EU FTA 금융부문은 한-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
- 우리나라에 현지법인·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,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*
 - * 해상·항공·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로 한정하여 개방
- ② 한-EU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 되고,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
- 상업적주채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,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
 - 유럽 선진금융사들의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

(4) 법률

- ①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(단,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)
- ② 이에 따라,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
 - 국내 로펌들의 선진 법률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노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 기대

(5) 환경

- ① 이번 한·EU FTA 협상결과, 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·미 FTA와 유사한 수준임
 - 다만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,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함
- ②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,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 -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*이 매우 낮아,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
 - * 환경서비스업은 산출액 기준으로 27위이며, 취업자수 기준으로 24위
 - 하수처리서비스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%수준 ('04년)으로 '13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(산업연구원)
 - 따라서, 유예기간 5년 동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, 동 분야의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
- ③ 한-EU FTA의 환경오염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유발효과가 감소
 - 오염물질배출원단위가 큰 음식료 제조업 등 생산량 감소 예상

5. 보건산업

- ▶ (협상 결과) 관세 철폐(3~7년내)
- ▶ (분석 방법) ①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정,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생산효과를 도출

① (수출입 영향 분석) 한-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의 對EU 수출 및 수입 증가 효과는 각각 5년 연평균 1천 6백만 달러, 1억 1백만달러 예상

○ 대 EU 무역수지는 8천 4백만 달러 추가 적자 예상

보건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

(단위 : 천\$)

| | 수출증가액(A) | | 수입증가액(B) | | 무역수지 추가발생액(A-B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5년 연평균 (1년~5년) | 15년 연평균 (1년~15년) | 5년 연평균 (1년~5년) | 15년 연평균 (1년~15년) | 5년 연평균 (1년~5년) | 15년 연평균 (1년~15년) |
| 의약품 | 10,679 | 16,986 | 36,603 | 93,671 | △25,923 | △76,685 |
| 의료기기 | 5,652 | 16,245 | 31,440 | 80,310 | △25,788 | △64,065 |
| 화장품 | 9 | 33 | 32,703 | 54,045 | △32,693 | △54,012 |
| 합 계 | 16,340 | 33,264 | 100,746 | 228,026 | △84,404 | △194,762 |

② (생산에 미치는 영향) 한-EU FTA 관세 철폐로 인한 보건산업의 생산감소액은 5년간 연평균 893억원으로 추정

보건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

(단위 : 백만원)

| | 5년 연평균 (1년~5년) | 15년 연평균 (1년~15년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약품 | △27,416 | △81,102 |
| 의료기기 | △27,273 | △67,755 |
| 화장품 | △34,576 | △57,123 |
| 합 계 | △89,265 | △205,980 |